

‘옥정호, 다시 꽃피는 임실’

임실군, 자연·문화·체험·먹거리 어우러진 ‘옥정호 벚꽃축제’ 11~12일 개최

2026년 천만관광 임실 실현의 출발점이 될 옥정호 벚꽃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운안면 임실길 59)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임실군은 ‘옥정호, 다시 꽃피는 임실’을 주제로 자연과 문화, 체험과 먹거리가 어우러진 복합형 관광축제를 선보이며 국내 정상급 트로트가수들의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들이 준비됐다.

축제 첫날인 11일에는 △퓨전국악 공연 △재즈밴드 공연 △케이팝 댄스 공연 △7080 댄스퍼퍼 △임실필름음악 △개막식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축하공연에는 미스터트롯3 최중우상자 김용빈, 미스터트롯4 3위 홍성운, 미스터트롯3 TOP6 남승민, 미스터트롯4 TOP16 채운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한층 더 뜨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둘째날인 12일에는 △펍크밴드 공연 △타악 퍼포먼스 공연 △2026 옥정호 벚꽃가요제가 진행된다.

2026 옥정호 벚꽃 가요제는 지역 최고의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가요제는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최고의 가창력을 겨루는 무대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제장 곳곳에서는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가 다채롭게 운영된다. 경성 의상 대여 체험을 통해 레트로



2026년 천만관광 임실 실현의 출발점이 될 옥정호 벚꽃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감성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으며, 벚꽃배경 인생샷, 출렁다리 앞 버스킹과 미술쇼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플라마켓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정성이 담긴 수공예품과 정갈한 가공식품 등 8개의 마켓이 열리며, 체험존에서는 벚꽃 향수·키링·캔들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플라워밴드, 네일아트 등 6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상춘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다.

먹거리 또한 풍성하다. 총 13개의 부스와 푸드트럭에서는 임실치즈를 활용한 치즈볼, 치즈빵 등 특화간식은 물론 닭강정, 불초밥 등 다양한 메뉴

가 제공된다. 특히, 옥정호 한우특화거리의 한우 음식집인 ‘옥정호 한우’에서는 고품질 임실 한우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반려가족을 위한 ‘벚투어’ 및 ‘어질리티 대회’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팻츠고 트래블을 통해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반려견 등록 확인 및 전용 케리어(유모차) 사용이 필수다.

한편, 군은 축제기간동안 27대의 셔틀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하는 등 원활한 교통 편의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축제 바가지요금 원천 차단

남원시, 춘향제 기간 물가안정·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추진

남원시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96회 춘향제 기간 방문객 급증에 따른 바가지요금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제 기간 중 물가 상승과 가격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인회 및 판매부스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가격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모든 판매부스에 가격 외부 게시를 의무화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 부스는 전년 대비 인상을과 원재료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관

매가격을 사전 책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광객의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소와 협업을 위생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외식업 정기총회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친절 서비스 제공과 가격 안정 참여를 유도하고, 추어요리 협회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숙박업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숙박요금 사전 고시제’를 운영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도·시군 합동점검과 축제 기간 집중점검을 병행하며, 전통

시장과 대형마트 등 주요 상권 122개 업체의 45개 품목에 대해 매주 현장 가격을 조사해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총 3천8백만 원 규모의 영업 물품과 방역·전기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6개 업소에는 7천만원 규모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68개 업소를 선정해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상가 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만 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수급 불안을 방지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농협 및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와 매점매석 금지 등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최

5분 자유발언·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는 9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채택을 통해 지역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전략 마련과 청년 정착을 위한 교육 혁신, 그리고 무너진 소상공인 지원 체계의 즉각적인 복원 등 시급한 시정 현안 해결에 나섰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정현 의원은 정부의 5급 3복 정책 기조 속에서 남원이 전북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며, 이어



트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지 조성 △글로벌 헬스케어 밸리 육성 등 남원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오동환 의원은 2026년 하반기 개인 예정인 ‘남원 인재학당’의 운영 방향을 제안, 이를 위해 △남원시 직영 운영 체계 구축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복합 인재 양성 플랫폼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의회는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원센터 인력 복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과수 화상병 차단... 3단계 방제 약제 공급

순창군이 과수 화상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단계 필수 방제 약제 공급을 완료했다.

이번 지원은 사과 재배 34농가와 배 재배 7농가 등 총 41농가, 24.3헥타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군은 기존 상습으로 병원균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고려해 약제 적기 살포를 농가에 당부했다. 방제는 개화 전과 개화기, 개화 이후 등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차 개화 전 단계에서는 병원균 초기 밀도를 낮추기 위해 통제와 항생제 계통 혼합 약제를 살포한다.

2차와 3차 단계에서는 미생물 제제를 연속 투입해 감염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순창군은 약제 공급과 함께 연내 4차례 정기 예찰을 실시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5월과 6월, 7월, 10월에 걸쳐 점검을 진행하고, 농가별 방제 기록지 작성도 유도해 사후 관리에 나선다. /순창=이양민 기자

남원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추진 실무회의

남원시는 미래형 농업모델 구축을 위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시청에서 관계기관 및 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대형 스마트팜, 교육 실습장, 친환경 에너지터미널 등 연계사업의 실시절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 및 기반시설 구축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 회의에서는 특히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과 관로 설치 방안, 단지 내 도로·용수·배수 등 기반시설 설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 단지 운영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개별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설계 및 공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남원시는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설계 단계부터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향후 공정 충돌 및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총 60ha 규모의 스마트농업 육성자구를 기반으로 청년농유입, 스마트농업 산업화,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결합된 농생명 산업 거점 조성을 추진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보건소, 홍역 예방수칙 준수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요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며 홍역 환자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고,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 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단,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해 해외여행 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 2회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최소 4주 전 의료기관 상담을 통한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장미축제 향토음식 개발 실습교육 실시

임실군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2026 임실N장미축제’를 앞두고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방문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향토음식개발 실습교육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12개 읍·면 생활 개선위원회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장 및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국제요리학원 정정희 원장을 초빙하여 임실만의 특색 있는 맛을 선보이고,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가격과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임실’의 이미지 각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실습 메뉴로는 임실의 특산물을 활용한 치즈감자전, 다슬기탕, 치즈감자크로켓, 치즈우삼겹밥 등 25종의 음식을 구성하여 실전 조리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